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음 11월 7일) 제21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경제활력화 추진 협의회 12월 도청 종합상황실 및 열린 전북경제활력화 추진 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1차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시행

국토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임대료 인상
기존 5%에서 2~3%대로 ↓
김승수 시장 “부당행위
근절 위해 적극 대응할 것”

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이 법 44조 2항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한인 5% 가까이 인상을 해 임차인의 불만이 쌓여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호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료증액 상한 5%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으로 국토부는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한다.
예년의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에는 2.9%, 2016년에는 2.1%, 작년 2.0%로 2~3% 선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임대료 증액 한도는 2~3%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온 전주 허가부영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한 관계로 불기소처분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자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마다 임대료 인상 격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던 서민들의 불만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3면 -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12면 - 전주공예품전시관 재개관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되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반드시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3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 3법 원안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단체 간 이견이 팽팽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발의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치원 3법이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유용 시 횡령죄를 적용하고, ▲유치원만 설치하거나 경영하는 이사장이나 유치원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의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학부모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3법’에 대해 반기를 든 상태다.
한편, 정부는 공립유치원에만 적용하던 ‘처음학교로’ 입학 방식을 사립유치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된 유치원을 검색한 후, 3순위 내에서 가고자 하는 유치원을 입력하면, 자동 무작위 추첨으로 원아 선발이 이뤄져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이후 간단히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공공 통합시스템이다.
지난 4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추첨 결과가 발표됐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결과 확인 및 등록 기간은 5일부터 8일까지였다. 일반모집 대기자 순위는 1차 등록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다.
처음학교로 대기자는 이달 말까지 수시로 변동된다. ‘대기’에서 등록 가능한 차례가 되면 ‘등록’ 버튼이 생긴다. 대기자 자격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유치원 추가 모집은 2019년 1월 중이다. /정은성 기자

1,000만 그루 나무로 도시가 정원이 됩니다

희뿌연 먼지구름 대신 푸르른 하늘을,
떨떨 끓는 아스팔트 대신 시원한 그늘을,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대신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정원도시 전주 -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전주가 더 쾌적해집니다.

미세먼지가 40.9% 줄어듭니다
기온이 3~7℃ 낮아집니다
자동차 소음이 75% 줄어듭니다

1000만 그루 전주 정원도시

‘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사건’ 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들어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8년2개월 도피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최규호 전 교육감을 검거한 직후부터 장기간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

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력자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직접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매우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피 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 초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남북 스포츠 교류
‘한·일 북상대회’
15일 전주서 개최

남한과 북한의 정기적인 스포츠교류를 위한 ‘한·일 북상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코리아북상매니지먼트(KBM)가 공동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프로북상 남북교류 전초전 북상M 한일최강전’이 오는 15일 오후 6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북상M 한국 슈퍼페더급 타이틀매치를 포함한 오픈경기 3경기 와 고이부치 켄·아베 다쓰마사·치바 카이 선수 등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서로준·신승운·정종민 등 쟁쟁한 국내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일전 5경기 등 총 8경기로 치러진다.
이 중 한일전 5경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KBS N 스포츠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이 대회는 지속적인 남북교류 북상대회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북상 우수인재들을 육성해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프로복서 세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송효철 기자